2. S&P·FTSE Russell, 종류주식 발행 회사의 지수편입 검토의견 발표

□ S&P와 FTSE Russell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지수편입 문제에 대하여 지난 3개월 동안 이해관계자 협의를 가진 후 내부 검토결과를 발표함[26)]

○ S&P는 종류주식(Multi-Class Shares)을 발행한 회사의 S&P Composite 1500(S&P500, S&P MidCap 400, S&P SmallCap 600 등)지수 편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함[27)]

- 동 정책은 향후 지수에 편입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고 S&P Global BMI지수 및 S&P Total Market지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

○ FTSE Russell은 Snap Inc, Blue Apron 등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주식을 발행한 회사들을 지수 구성종목에서 제외시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[28)]

-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, FTSE Russell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기업의 일반 투자자가 소유한 의결권 제한이 없는 주식 비율이 전체 발행 주식의 5%를 넘어야 함[29)]
- 동 정책은 9월 지수 편입 검토시점부터 추가 편입되거나 신규 상장하는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, 기존 구성종목 기업들은 2022년부터 적용을 받게 됨
- 이에 따라 동 기준(5%)을 미달하는 기존 구성종목 35개사는 2022년까지 일반 투자자의 의결권 비율을 높여야 함

□ 한편 MSCI는 무의결권 주식에 관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8월 31일까지 끝낼 예정임

26) https://corpgov.law.harvard.edu/2017/08/05/sp-and-ftse-russell-on-exclusion-of-companies-with-multi-class-shares/
27) See S&P Dow Jones Indices Press Release, 2017.7.31., "S&P Dow Jones Indices Announces Decision on Multi-Class Shares and Voting Rules", available at https://www.spice-indices.com/idpfiles/spice-assets/resources/public/documents/561162_spdjimulti-classsharesandvotingrulesannouncement7.31.17.pdf?force_download=true
28) FTSE, 「FTSE Russell Voting Rights Consultation - Next Steps」, http://www.ftse.com/products/downloads/FTSE_Russell_Voting_Rights_Consultation_Next_Steps.pdf, [2017.7]
29) 현재 25% 기준을 적용받는 FTSE UK Series지수 이해관계자들은 25% 기준을 지지하였으나, 5% 기준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동 기준의 적정성은 매년 검토될 예정임